여수·순천 '조례안 재의' 놓고 마찰

순천시, 민간투자 조례 재의 의회 묵살에 제소
여수시도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재의 요구

순천시와 여수시가 최근 의원 발의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크게 반발, 각각 재의를 추진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순천 및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순천시의회는 지난 9월 의원발의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의결한 뒤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해오자 이를 거부했다가 최근 제소를 당했다.

순천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 시행 과정의 적정·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시행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8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 공포까지 해버렸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민간사업 시행전 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관련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특히 조례로 인해 사업내용이 사전 공개되면 투자위축은 물론, 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의 발생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안 공포도 미뤄왔다.

재의 요구를 묵살당한 집행부는 급기야 지난 22일 대법원에 이 조례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 양측의 대립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수시도 지난 2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여수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 최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주들의 영세한 처지를 감안,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주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집행부는 2012여수박람회를 앞둔 시점에서 조례안이 가결돼 주차대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앞서 김충석 여수시장은 조례안 가결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시의회를 비난했고, 시의회도 유감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양측의 감정이 극에 달했다.

이번 재의 요구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양측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어떤 해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김은종기자mihang@

LH '사업 재조정' 발표 또 연기

광주·전남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수 차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을 덜기 위해 마련 중인 사업 재조정 발표 시기가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달로 또 다시 늦춰졌다. 사업 재조정의 선결 문제인 'LH 공사법'의 국회 심의가 다음달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는 내년 사업계획조차 짜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 일정에 큰 차질이 빚고 있다.

23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의 공공사업 관련 정부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LH 공사법'의 국회 심의가 이달에서 12월로 연기됐다.

LH가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공사법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LH 지원에 앞서 LH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공사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9월에서 10월, 11월로 계속 늦춰진데 이어 다시 12월 초 · 중순께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LH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자금의 조달을 쉽게 해줌으로써 유동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와 LH는 기대하고 있다.

LH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나 신도시 등의 학교용지 조성비와 광역교통 시설비, 녹지 조성비 등 LH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가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LH가 내부적으로 정한 사업 재조정 계획을 놓고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있으나 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태다.

LH는 총 414개 사업(1억8000만평, 사업비 425조원) 가운데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6000만평, 143조원)을 대상으로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광산구와 함평 월야면에 조성 중인 '빛그린산업단지'와 광주 효천1지구(93만7000㎡)와 용산지구(19만2000㎡) 등 도시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광주 지원3지구(5만590㎡ 규모)과 유촌지구(9만6590㎡)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동명2지구(6만3233㎡)과 양림2지구(8만1162㎡)도 표류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과태료·벌금 수입 3조1000억"

법무부·경찰청·공정위 등 수입규모 책정

중앙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벌금으로 거둬들일 예산상 수입 규모를 3조1000억원가량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위는 내년에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수입을 편성했고, 무인 단속장비를 확충 중인 경찰은 벌금과 과태료로 9000억원가량을 전망했다.

23일 부처별 내년 예산안과 국회에 따르면 2011년 세입예산안의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은 3조1952억원으로 올해(3조754억원)보다 1198억원(3.9%) 증액됐다. 이는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211조1271억원 가운데 1.5%에 해당한다.

벌금·과태료 수입이 많은 부처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 등 3곳이다.

먼저 법무부는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징수하는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을 올해 1조7548억원에서 내년 1조7905억원으로 357억원(2.0%) 늘렸다. 이 중 벌금이 1조70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태료가 482억원, 몰수금이 411억원이었다.

경찰청은 벌금·과태료 세입예산을 올해 8597억원에서 내년 8987억원으로 390억원(4.5%) 증액했다. 이 가운데 벌금은 1475억원으로 올해보다 9.5% 줄였지만, 과태료는 7512억원으로 7.8% 늘려잡았다.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5.9% 인상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2일 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5.9% 인상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33%에서 내년 1월부터 5.64%로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으로 4398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9687원에서 7만3799원으로 4112원이 오른다.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동결, 올해 4.9% 인상률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건정심은 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결정해 전체 진료비 역시 1.6% 오르게 된다.

/연합뉴스

수치여사와 꼭 닮은 아들… 10년만의 모자상봉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와 아들 킴 아리스(오른쪽)가 23일 미얀마 양곤 공항을 떠나고 있다. 최근 21년 중 15년가량을 가택연금 및 수감 상태로 지내온 수치 여사는 이날 10년 만에 모자상봉의 감격을 누렸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압사사고 349명 사망

물축제에 인파 200만명 몰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축제 중 발생한 압사사고의 사망자 수가 400명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영문 일간신문 프놈펜 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께 프놈펜 시내 바삭강 위의 작은 섬인 코픽섬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적게는 349명이, 많게는 39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소 755명이 부상했으며 확인된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은 없다고 키에우 간하릿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은 이날 밝혔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는 폴 포트 정권이 붕괴된 이후 지난 31년 동안에 발생한 최대의 비극"이라며 이번 사고로 적어도 349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고는 3일간 진행되는 연례 물 축제 '본 옴 뚝(Bon Om Touk)'의 마지막 날인 22일 축제 행사인 보트 경기를 보려고 코픽섬에 몰려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기 직후 섬과 육지를 잇는 좁은 다리 위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했다.

서로 밀려서 쓰러지고 밟히면서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가려 사방으로 미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깔리고 다리에서 떨어져 강으로 빠졌다.

훈센 총리는 오는 27일을 희생자들을 기리는 국가적 애도일로 선포하고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본 옴 뚝 물축제는 매년 우기가 끝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로, 이번 축제를 보기 위해 약 200만명의 인파가 프놈펜에 몰렸을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연합뉴스

김영삼 前 대통령 또 친자확인 피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씨는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7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대리인은 유전자 감정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신청서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내고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인지 소송에서 혈연관계가 있다고 볼 정황 증거가 뚜렷함에도 당사자가 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검 명령에 이어 과태료나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2005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숙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숙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社團法人 星谷傳統文化研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作名·鑑定專門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 동구 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

e소풍닷컴 (주)평화의 섬 제주여행사
■ 제주시 노형동 2292-1번지 현일B/D A동 1층
■ 등록번호 616-81-32024
주소창에서 e소풍닷컴 을 치세요.
크루즈투어(목포, 녹동출발)
제주도 여행 1박 2일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제주관광)
목포출발 2박 3일 89,000원
★일정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 출발–제주항도착 및 직원미팅
• 2일째 : 오설록녹차뮤지엄경유–제주유리의성–서커스월드–석부작테마파크–중식–유람선(옵션)–제주올레길 7코스 맛보기(1시간)–천지연폭포
• 3일째 : 삼나무숲길경유–코끼리랜드(옵션)–성읍민속마을–중식–일출랜드–광치기해안가–부두
★포함사항 : 선박료, 숙박료, 조.중.석식 2회, 입장료, 차량료
★불포함사항 : 옵션코스, 기사, 가이드 수고비
녹동(고흥)출발 2박 3일 89,000원
★일정
• 1일째 : 녹동연안부두 출발–제주항도착 및 직원미팅
• 2일째 : 오설록녹차뮤지엄경유–제주유리의성–서커스월드–석부작테마파크–중식–유람선(옵션)–제주올레길 7코스 맛보기(1시간)–천지연폭포
• 3일째 : 삼나무숲길경유–코끼리랜드(옵션)–성읍민속마을–중식–일출랜드–광치기해안가–부두
★포함사항 : 선박료, 숙박료, 조.중.석식 2회, 입장료, 차량료
★불포함사항 : 옵션코스, 기사, 가이드 수고비
※ 1일 한라산등반 + 1일 제주관광 99,000원
호텔 | 팬션 | 렌트카 | 제주배편 예약 가능
전화 064-745-0963 (주)평화의섬제주 www.esopung.com
협찬 씨월드고속훼리 남해고속훼리